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강진우체국, 디지털 범죄 예방 서비스 협약

✎ 김준혁(=호남) 기자 | ☎ 승인 2026.07.01 14:24

성전면 배후마을 대상...집배원이 직접 방문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디지털 안심 꾸러미 배달·스마트 안전교육 병행...취약계층 밀착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가 강진우체국과 손잡고 농촌 배후마을 디지털 범죄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 서비스에 나섰다.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폴리뉴스 김준혁(=호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가 강진우체국과 손잡고 농촌 배후마을 디지털 범죄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 서비스에 나섰다.

강진지사는 1일 오전 강진우체국 회의실에서 전남지방우정청 강진우체국과 '디지털 안심 지원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서비스는 성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우체국 집배원이 성전면 배후마을 각 가정에 디지털 안심 꾸러미를 배달하면서 보이스피싱 예방 등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철욱 강진지사장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밀집한 농촌 배후마을에 우체국 네트워크를 통해 밀착형 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농촌 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지원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혁(=호남) 기자 junjun6816@naver.com
